

베드로전서

■ 새 언약의 관계(220727)

1. 발신인: 사도 베드로(1:1)

- 1.1. 예수님과 첫 만남과 새 이름(요 1:42)
 - 1.1.1. 원래의 이름: 잘 듣는다는 뜻의 ()
 - 1.1.2. 예수께서 바위를 뜻하는 "게바"라는 아람어 이름을 주심
 - 1.1.3. 이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"()" (Πέτρος)
- 1.2. 새 이름을 주신 목적
 - 1.2.1. 개인의 성품이 굳세어질 것을 의도?
 - 1.2.2. 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(마 16:18)
 - 1.2.3. 견고한 ()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
- 1.3. 베드로의 신앙: 내 ()으로의 신앙 → 매순간 ()께 순종하는 신앙
 - 1.3.1. 예수님 가는 곳이면 감옥도, 죽는 데도 가겠다고 다짐(마 26:33)
 - 1.3.2.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(마 26:75)
 - 1.3.3.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, 주께서 함께하시는 베드로가 반석(눅 22:32)
 - 1.3.4. 성령을 받은 후 달라진 베드로의 신앙(행 11:17)
 - 1.3.5. 베드로의 순교(전승): "내 어찌 우리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?" →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
- 1.4. 베드로는 실패를 아는 사도; 실패를 딛고 성장한 사도 →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도!

2. 수신인: 소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

- 2.1. 지리적으로 본도, 갈라디아, 갑바도기아, 아시아, 비누니아
- 2.2.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 밖의 지역(롬 15:20)
- 2.3. "()" 나그네(διασπορά; 뱌전 1:1)
 - 2.3.1. 디아스포라: 바벨론 포로 이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
 - 2.3.2. 팔레스타인 밖, 이방인의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킴
 - 2.3.3. 디아스포라의 개념에서 지리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요소
 - 2.3.4. 세상과의 타협 및 동화의 압력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(다니엘과 세 친구)
- 2.4. 흩어진 "()"
 - A. 신앙을 이유로 스스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
 - B.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, 안주할 수 없는 사람들(히 11:13-14)
 - C. 영원한 본향을 향해

3.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(1:2)

- 3.1. 삼위일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
- 3.2. 구원의 순서(*Ordo salutis*)

3.2.1. “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”—구속의 ()

- A.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연한 결정이 아님
- B. 흠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

3.2.2. “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”—구속의 ()

- A. 선행적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(벧전 1:23)
- B.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심

*믿음은 그 자체로 철저히 은혜로운 성령의 행위다. 성령이 먼저 하나님에 이르도록 마음을 흔들고,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속하며, 유죄 판결을 내리고, 용서를 보증하며, 그 미덕의 열매로 인격을 변화시킨다(캐런 쥬스, <베드로전서>, 95).”

3.2.3. “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”—구속의 ()

- A. 옛 언약: 순종에 대한 서약 이후에 피뿌림의 의식 진행(출 24:3, 8)
- B. 새 언약: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피뿌림을 받아 새 언약이 체결

3.3.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놓여 있음을 상기 → 위로와 소망

